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호 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달맞이꽃 이미지의 금속표현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송 진 희

# 달맞이꽃 이미지의 금속표현연구

박 호 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송 진 희

# 인 준 서

송진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달맞이꽃은 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인 귀화식물로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분포되었으며, 달을 기다리듯 밤에 꽃을 피운다하여 ‘달맞이꽃’ 또는 ‘월견초’라 부른다. 달맞이꽃은 번식력이 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꽃으로, 땅 속 깊이 굽은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지나 여름이 되면 노란꽃망울을 터트린다. 연구자는 이러한 달맞이꽃의 이미지에서 낯선 나라로 건너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다문화, 다민족화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형성하고 그 인구 유입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느낀 결혼이민여성들 내면의 그리움·외로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등의 감정을 달맞이꽃의 형태적 변형을 통해 금속 조형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고, 달맞이꽃의 외형적 특성을 직접 관찰·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달맞이꽃을 소재로 삼고, 결혼이민여성의 속성에서 공통점을 찾아 다양한 조형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 내면의 그리움과 희망의 감정을 달맞이꽃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작품의 조형 전개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달맞이꽃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고, 결혼이민여성의 정황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달맞이꽃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마다 달맞이꽃을 중심으로 이미지 표현을 하였으며, 달과 나방은 결혼이민여성의 그리움을 위로해 주는 매개체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테이블 작품을 제외한 작품들은 회화적 표현을 함으로써 공간에 장식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의 주재료는 적동, 알루미늄과 철을 사용하였으며 불착색, 파티네이션 착색, 철착색, 황화칼륨착색 등의 착색방법과 아크릴컬러 채색을 함으로서 금속이 갖는 색의 한계에서 벗어나 색감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달맞이꽃의 이미지와 결혼이민여성의 이미지를 결부시켜 공통된 주제로 여러 이미지의 작품을 조형화한 것은 연구자의 조형의도를 표현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작품 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 연구가 결혼이민여성들의 애환을 표현함으로써 그녀들에게 조그마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1
II. 작품 조형 전개 .....	3
1. 조형 소재로서의 달맞이꽃 .....	3
2. 결혼이민여성의 정황 .....	4
3. 달맞이꽃 이미지의 조형전개 .....	7
4. 작품 및 작품 설명 .....	11
III. 결 론 .....	29

## 참고문헌

## ABSTRACT

## 그림 목 차

(그 립 1) 달맞이꽃 .....	3
(그 립 2) 달맞이꽃 .....	3
(그 립 3) 꽃의 표현 .....	8
(그 립 4) 달의 표현 .....	8
(그 립 5) 나방의 표현 .....	9
(그 립 6) 작품의 표면처리 .....	10

## 표 목 차

〈표 1〉 국제결혼 이민자의 연도별 증감추이 .....	5
〈표 2〉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	6

## 작 품 목 차

[작 품 1] 우리 만남은 .....	11
[작 품 2] 달빛, 그리움 .....	13
[작 품 3] 네가 보이는 곳 .....	18
[작 품 4] 그 밤, 그녀 I .....	17
[작 품 5] 그 밤, 그녀 II .....	19
[작 품 6] 환한 어두움 .....	21
[작 품 7] 내 마음 밝게 .....	23
[작 품 8] 바람 불던 날 우리는 .....	25
[작 품 9] 강물에 실려 .....	27

# I. 서론

## 1. 연구 목적

달맞이꽃은 달이 뜨는 저녁에 피어나 아침이 되면 지는 꽃으로 그리움과 기다림, 애절함, 말없는 사랑의 꽃말을 가졌다. 귀화식물로서 낮은 땅에 뿌리내리고 모진 비바람에도 생명을 이어가는 그 강인함과 역척스러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애뜻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어두운 밤이면 살며시 피어나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의 달맞이꽃은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여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달맞이꽃의 이미지에서 연구자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을 간직한 채 홀로 타국에 건너와 묵묵히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모습을 연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달맞이꽃의 이미지를 결혼이민여성의 내면을 투영한 상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결혼이민여성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향수를 위로해 주는 대상으로서, 밤이면 달을 닮은 노란꽃망울을 터뜨리며 어둠을 밝혀주는 달맞이꽃의 형태적 변형을 통하여 금속 조형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에 앞서 참고문헌을 통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조형적인 표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달맞이꽃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서 기초지식을 갖추하고자하였으며 외형적 이미지의 고유한 형태구조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맞이꽃을 통해 느낀 강인한 생명력, 그리움과 향수 등의 감정이 결혼이민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연구자의 감성적 판단

에 의하여 그녀들의 이미지를 달맞이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달맞이꽃의 이미지를 조형화함에 있어서 단순히 외형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미지표현을 위한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의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달맞이꽃을 중심으로 이미지 전달을 도모하고, 조형적 상황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그녀들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내면의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 II. 작품 조형 전개

### 1. 조형 소재로서의 달맞이꽃

달맞이꽃은 어두운 밤이면 달빛을 받아 화사한 노란색의 자태를 드러내는 꽃으로 달이 뜨지 않는 날에도 오므렸던 꽃잎을 활짝 열고 향긋한 향을 내뿜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담아 꽃말은 ‘자유로운 마음, 기다림, 말없는 사랑’ 이다.



(그림 1) 달맞이꽃



(그림 2) 달맞이꽃

달맞이꽃(Evening Primrose)은 바늘꽃과의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한다. 줄기가 곧게 자라며 위쪽에서 가지를 치며 전체적으로 긴 털이 나 있다. 잎은 어긋나고 넓은 선형으로 길이 5~15cm, 너비 5~12mm로 끝은 뾰족하고 밑 부분이 직접 줄기에 닿으며 가장자리에 얇은 톱니가 있고 짙은 녹색을 띤다. 꽃은 6~9월경에 노란색 꽃잎이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리며 지름이 2~3cm이고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든다.(그림 1)

꽃받침 조각은 4개인데 2개씩 합쳐지고 꽃이 필 때 뒤로 젖혀진다. 꽃잎

은 4개로 거꾸로 세운 달걀 모양이다. 수술 8개, 암술 1개로 암술머리는 4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이며 긴 타원형으로 털이 있고, 길이 2~3cm이며 4개로 갈라진다.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밭이나 가장자리 독에 납작 엎드려 있을 내다가 5월 말이면 30cm를 훌쩍 넘어버린다.<sup>1)</sup>(그림 2)

낮에는 좀처럼 활짝 핀 모습을 보기 어렵고 밤새 꽃이 피었다가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곧 오므라들어 달맞이꽃·월견초(月見草)라는 이름이 붙어졌다.<sup>2)</sup> 밤이 깊을수록 꽃잎에 이슬이 맺혀 밤을 밝힌다고 해서 아래향(夜來香)·월하향(月下香)이라 불리기도 한다. 남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국 각지의 산야지(山野地)에 흔히 퍼져 자라는 귀화식물(歸化植物)이다.<sup>3)</sup> 외래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퍼져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들꽃이 되었으며, 순박하고 꾸밈없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닮았다고 느끼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달맞이꽃이 토종식물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조형소재로서 달맞이꽃의 이미지는 낮선 땅에 뿌리내리고 모진 비바람에도 꺾꽂하게 살아가는 강한 생명력의 이미지를 지닌 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달맞이꽃의 이미지와 결혼이민여성의 이미지와 연관시켜 조형화 해 보고자 한다.

## 2. 결혼이민여성의 정황

달맞이꽃은 비록 진한 향기를 가진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새롭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고 인내하며 꽃을 피어내는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달맞이꽃의 이미지에서 홀로 낮선 타국에 건너와

---

1) 두산백과(Doopedia), www.doopedia.co.kr

2)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현암사,1996), p297.

3) 김태정, 『한국야생화7.여름 길가에 피는 꽃』(국일미디어,1997), p185.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이 땅에 뿌리내린 결혼이민여성을 연상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1900년대 초 근대 유학파와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래로 1990년 619명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민여성은 13년 10월 기준 150,828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sup>4)</sup>〈표 1〉 하지만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제결혼 가족의 60%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경제문제를 겪고 있으며, 더불어 가족관계와 규범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소외되는 그들의 애환이 야기되고 있다.<sup>5)</sup>

〈표 1〉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년 10월	'13년 10월
인 원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48,253	150,828
전년 대비 증 감 륜	2.1%	12.2%	2.1%	-0.2%		1.7%

(2013.10.31. 현재, 단위 : 명)

결혼이민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등 광범위한 부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전문 직업 교육,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링 결연사업등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표 2〉<sup>6)</sup>

4)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 (2013년 10월).

5) 전영선, (2013, 9, 23), 돌아오는 베트남댁.. 눈물 대신 희망을, 중앙일보, 8면.

6) 김이선 외 3명,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2006,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p111.

〈 표 2 〉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주제별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실시기관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한글,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유적 탐방,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일상생활적응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문화관광부 기초자치단체
가족관계증진	가족상담 부부관계교육 가족관계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 연계망 형성 지원	친정부모뎀기, 여성단체와의 결연 이주여성모임 지원	기초자치단체
친정보내주기	고향방문 지원	기초자치단체
여성복지증진	임신, 출산,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기초자치단체
상담	일반상담, 법률상담	기초자치단체
취업	취업기술교육, 취업알선	기초자치단체
일반교육	컴퓨터, 교양취미, 자녀대상교육	기초자치단체
위안행사	장기자랑, 단합대회, 야유회, 생일잔치	기초자치단체
문화교류	풍물전시교류, 요리교류	기초자치단체
기타	폭력피해자 쉼터, 긴급생계지원 주거환경개선, 결혼식, 종교생활 교육참가자 자녀보육 서비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기초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이와 더불어 그녀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화교육에 참여하고, 활발한 사회 생활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더불어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한국인으로 안정된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선의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갈등과 부부갈등이 심화되며, 경제적 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보다도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7)</sup> 이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접하는

7) 이영선,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8), pp.60-65.

어려움 보다 향수, 소외감과 외로움이 더 많은 갈등을 유발 한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이 타국의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외국생활에 대한 회의와 결혼생활 등의 난관으로 인하여 더욱 우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짧은 여행의 여정 속에서도 겪게 되는 어려움의 경험을 통해 그녀들이 마주하고 있는 낯선 곳에서의 이질감과 소외감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민족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연구자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 ·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지 할 수 있었던 그녀들의 삶의 애환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금속공예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한다.

### 3. 달맞이꽃 이미지의 조형전개

달맞이꽃은 달이 뜨지 않는 밤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달빛을 닮은 노랗고 애뜻한 모습으로 묵묵히 달을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달맞이꽃의 이미지는 지고지순함, 애절함,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달맞이꽃의 이미지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결혼이민여성의 내면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금속을 재료로 가공, 조립, 용접, 표면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이를 위해 각 작품마다 조형적 상황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기다림 · 그리움 · 외로움 ·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등의 감정을 꽃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시각화 하였다. 특히 주 소재인 달맞이꽃의 표현에 있어서 적절한 이미지 표현을 위해 수술의 형태와 꽃잎의 표현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림 3)

작품에서 주로 표현한 달과 나방은 달맞이꽃의 그리움의 대상이다. 즉



(그림 3) 꽃의 표현

결혼이민여성의 내면을 위로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밤이 타향의 외로운 삶을 의미한다면 달은 그 속에서 환하게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위로의 의미인 것이다. 달은 예로부터 상서(祥瑞)로우며 순환을 의미하고, 풍요와 신비스러운 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부드러움, 고귀한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sup>8)</sup> 이에 작품 속에서 달은 어둠속에서 희망이 되어주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였다. (그림 4)



(그림 4) 달의 표현

8) 김현주, 「해와 달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p.5.

나방 또한 달과 같이 그리움과 위로의 대상이 되는 소재이다. 나방은 실제로 달맞이꽃의 수분에 도움을 주는 야행성 곤충이다. 화려한 나비가 아닌 소박한 모습의 나방을 소재로 선택하여 밤에 피는 달맞이꽃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달이 다가갈 수 없는 머나먼 존재라면 나방은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의 의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



(그림 5) 나방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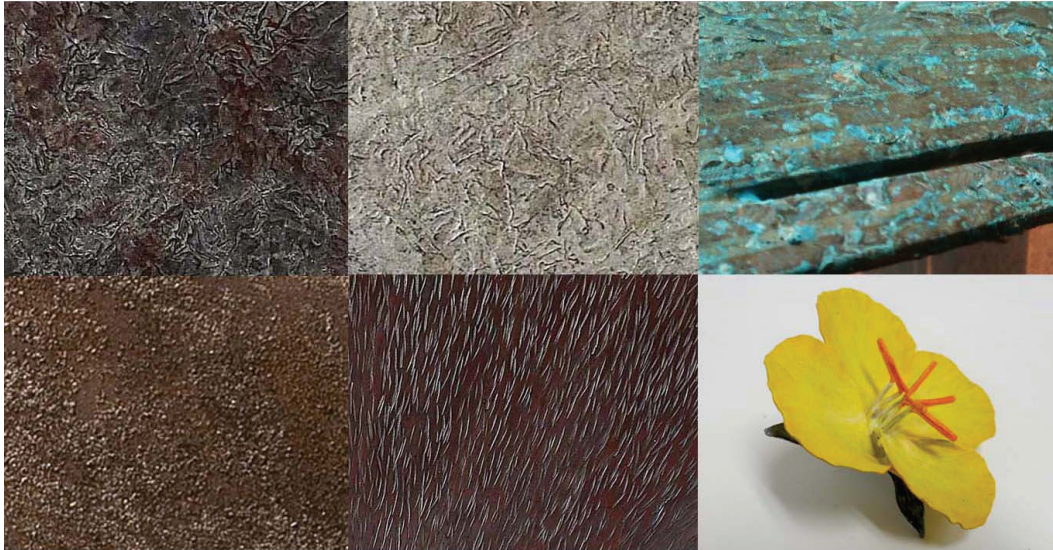
작품 제작은 달맞이꽃을 관찰하여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기다림, 그리움, 외로움의 감정들을 꽃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체화 하는데 있어 달맞이꽃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의 변형, 구성요소의 생략과 조율을 통해 재해석하여 작품의 이미지화를 시도하였다.

작품의 주재료는 적동, 알루미늄과 철을 사용하였다. 표면처리는 불착색<sup>9)</sup>, 파티네이션착색<sup>10)</sup>, 철착색<sup>11)</sup>, 황화칼륨착색<sup>12)</sup>을 하였으며, 배경이 되

- 
- 9) 황산구리 100g : 물 1ℓ, 질산구리 100g: 물 1ℓ, 황산구리 40g : 질산구리 60g : 물 1ℓ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으로 불착색 한 후 밀랍과 우레탄도료로 마무리하였다.
- 10) 염화암모늄 100g : 탄산암모늄 150g : 물 1ℓ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으로 톱밥착색 한 후 밀랍으로 마무리 하였다.
- 11) 염화제1철 25cc, 염산 12.5cc, 질산 10cc, 암모니아 10cc, 물 1ℓ를 혼합한 용액으로 철의 표면을 부식시킨 후 밀랍과 투명 무광 스프레이로 마무리 하였다.

불작색

파티네이션 착색



철 착색

황화칼륨 착색

아크릴 컬러

(그림 6) 작품의 표면처리

는 프레임과 꽃은 주로 아크릴컬러로 채색하여 작품마다 설정한 상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효과적인 회화적 표현을 위한 색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그림 6) [작품 9]의 테이블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벽걸이 형태의 부조 형식으로 제작하여 실내벽장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

12) 황화칼륨 약 3~5g, 더운 물 1ℓ 착색 후 광택제로 마무리 하였다.

#### 4. 작품 및 작품 설명



[작 품 1] 우리 만남은  
92 × 61cm, 알루미늄, 적동

[작 품 1] 우리 만남은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습을 깊어가는 가을밤에 피어난 달맞이꽃의 쓸쓸함에 비유한 작품으로, 꽃을 위로 하듯 꽃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나방과의 만남을 화면에 담았다.

달맞이꽃은 적동을 가공하여 형태를 제작하였다. 쓸쓸한 여인의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 달맞이꽃의 꽃송이를 아래 방향으로 기울이고, 잎사귀는 바람에 날리듯이 연출하여 현실의 고단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잎사귀를 갈색과 빛바랜 노란색으로 채색하여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나방은 적동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자제하여 제작하였으며, 표면 처리는 황산구리 희석액(흰색부분)과 질산구리 희석액(갈색부분)으로 불착색하고, 밀랍으로 색을 정착시켜 동박의 질감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작품의 배경은 회화적 느낌을 주기 위해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을 제작하였고 철 성분이 들어간 금속성 느낌의 아크릴컬러로 채색하였다.



[작 품 2] 달빛 그리움  
108 × 61cm, 알루미늄, 적동

[작 품 2] 달빛 그리움

달빛이 밝은 어느 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바람에 실려, 어머니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시각화하였다.

우리들의 아픔을 감싸고 언제나 따스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달에 비유하였다. 달은 적동박을 이용해 구김을 주어서 질감 표현을 하였고, 밝고 포근한 느낌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곡선적인 볼륨감을 주었으며, 황산구리 희석액으로 불착색하여 무채색으로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드러나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표현하였다.

꽃잎이 떨어진 꽃들은 낯선 삶과 외로운 여성들의 마음을 상징하였으며,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달에게서 따스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였다. 훑날리는 꽃잎 중 달빛을 정면으로 받는 꽃잎은 채도가 높은 노란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위로를 받아 평온해진 마음을 시각화하였다. 꽃잎의 간격과 크기의 변화를 주어 점진적인 리듬감이 느껴지게 함으로써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오는 밤의 분위기를 더하고자 하였다.



[작 품 3] 네가 보이는 곳

74 × 52cm, 적동

[작 품 3] 네가 보이는 곳

이 작품은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을 기다리는 달맞이꽃의 모습에 비유하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밤의 끝인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각화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모습을 드러낸 달은 춥고 긴 밤을 보낸 달맞이꽃에게 더욱 또렷이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한 달의 표현은 적동의 외곽선을 정형으로 절단하여 볼륨감을 주고, 황화칼륨착색을 하여서 적동 본연의 색이 은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였다. 배경은 울퉁불퉁한 질감으로 대비시켜 달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적동박에 구김을 강하게 주어 제작하였으며, 황산구리 희석액으로 불착색 한 후 밀랍으로 정착시켜 마무리하였다. 또한 차가운 새벽의 달맞이꽃을 표현하기 위해 다소 우울한 분위기의 청색과 보라색 계열의 한색으로 꽃의 줄기와 잎을 아크릴컬러로 채색하였다.

배경과 꽃의 명도대비를 줄임으로서 전체적으로 안개 낀 새벽의 쓸쓸하면서도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의도하였다.



[작 품 4] 그 밤, 그녀 I

80 × 52cm, 철, 적동

[작 품 4] 그 밤, 그녀 I

이 작품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진 내면의 강인한 미(美)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철을 단조하여 연약한 여성의 걸모습과는 달리 단단하고 굳센 내면의 강인함을 시각화하였다. 동시에 달맞이꽃이 가진 부드러운 외곽선을 강조함으로써 이 꽃이 가지는 미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하였다.

화면에 한 송이의 달맞이꽃을 크고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달맞이꽃잎의 우아한 선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도 하였으며, 안쪽 면을 선명한 노란색으로 채색하고 수술의 길이를 과장함으로써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의 마음을 담았다.



[작 품 5] 그 밤, 그녀Ⅱ

78 × 42cm, 알루미늄, 철, 적동

[작 품 5] 그 밤, 그녀Ⅱ

[작 품 4] <그 밤, 그녀>의 연작으로 이 작품 역시 달맞이꽃이 가지는 곡선형의 외곽선을 강조하였다.

평범한 사람도 오랜 시간 관심을 두고 보았을 때 그 사람만의 개성과 매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마련이다. 중앙에 한 송이의 꽃만 배치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켜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철을 재료로 달맞이꽃의 형태를 단조하여 투박하면서도 고운 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표면을 다소 거칠게 철착색을 하여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작 품 4]와 마찬가지로 밝은 노란색으로 꽃의 내부를 채색하고 수술에 활발한 리듬감을 주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표현하였다.



[작 품 6] 환한 어두움  
109 × 69cm, 알루미늄, 적동

[작 품 6] 환한 어두움

타국의 낯선 삶 속에서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은 때때로 우울함으로 다가온다. 달맞이꽃에 이러한 여인의 감정을 이입하고 우울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작품화면속에 연출하였다. 꽃을 부분 확대하여 이미지화함으로서 혼자일 때 더욱 크게 느껴지는 외로움을 강조하였고, 달맞이꽃 본연의 선명한 노란색보다 명도를 낮춰 황산구리 40g : 질산구리 60g : 물 1ℓ의 희석액으로 어둡게 불착색하고 우레탄 도료로 마무리함으로서 우울함, 고독,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수술의 길이를 과장시켜 달과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반영하고 밝은 색의 아크릴 컬러로 채색하여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워할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포근한 느낌의 보름달이 아닌 쓸쓸한 느낌의 그믐달을 윤곽선으로 표현하고,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 달의 배경을 이중으로 제작하였다. 그믐달로 설정한 것은 달맞이꽃과 마주보게 배치하여 서로의 애뜻함이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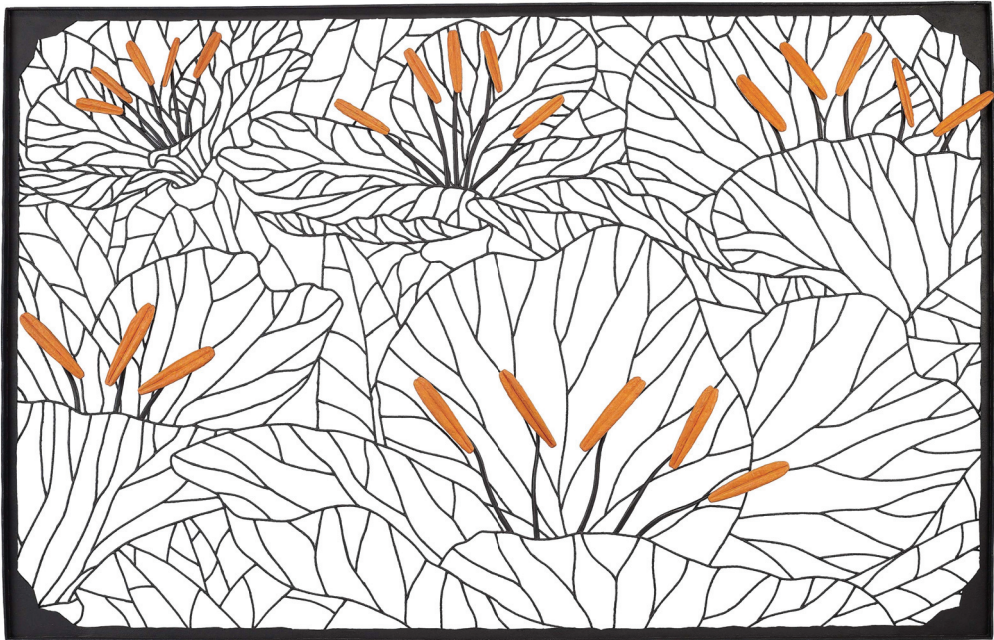
[작 품 7] 내 마음 밝게  
82 × 61cm, 알루미늄, 적동, 황동

[작 품 7] 내 마음 밝게

고향에서 즐거웠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회상에 잠긴 여인의 모습을 나방을 만나 환희에 찬 달맞이꽃의 모습에 비유하여 상황을 설정하였다.

깊고 어두운 밤, 달맞이꽃의 향기를 맡은 나방이 조심스레 다가와 주변을 맴돌며 들만의 이야기꽃을 피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나방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유연한 곡선의 달맞이꽃으로 표현하였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적동과 황동의 색의 차이로 드러내려하였으며, 수술은 춤을 추는 듯이 동적이고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고 마중을 나온 듯이 나방을 향하도록 설정하여 설렘의 감정을 시각화하였다.

나방은 적동박으로 구김을 주어 형태를 제작하고 황산구리 희석액(흰색부분)과 질산구리 희석액(갈색부분)으로 불착색하고 밀랍으로 색을 정착하였으며, 달맞이꽃은 황화칼륨착색으로 적동과 황동의 색감을 조절하였고 광택제로 마무리하였다. 작품의 배경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자연과 닮은 색인 녹색의 아크릴컬러로 채색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 품 8] 바람 불던 날 우리는

141 × 91cm, 철, 적동

[작 품 8] 바람 불던 날 우리는

낮선 타향의 삶이지만 결혼이민여성들 또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가족에게 위안을 받고 위안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낮선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바람을 굳락할 이뤄 활짝 핀 달맞이꽃의 모습에 담고자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선을 이용한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달맞이꽃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표현의 다양성을 주기 위함이다. 다른 작품에서 면으로 구성된 이미지적 표현의 조형요소를 달맞이꽃에 적용했다면 이번작품의 달맞이꽃은 구체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선적표현의 조형요소를 적용한 것이다.

철을 이용해 프레임을 만들어서 회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꽃의 형태는 적동선에 적동박을 감싸 산소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질감을 주었으며 유연, 우아, 은화 등 여성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곡선 위주의 선으로 제작하였다. 배경이 되면서 꽃들을 연결해 주는 잎사귀의 형태는 꽃의 형태와 분리될 수 있도록 직선적인 느낌을 주고, 꽃을 표현한 선과는 방향성을 다르게 하여 꽃의 형태가 잘 드러나게 하였다. 원근감과 상대성을 이용한 효과적인 구성을 피하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마음의 안정을 찾은 평온한 분위기를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작 품 9] 강물에 실려

131 × 60 × 35cm, 철, 적동, 장미목, 유리

## [작 품 9] 강물에 실려

삶을 살다보면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곳으로 떠나고 싶은 날들이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달맞이꽃은 고향을 다녀오고 싶은 여성의 마음을 의미한다. 달빛을 따라, 강물을 따라 현실에서 벗어나 그리운 고향에 가보고픈 여성의 바람을 강물에 흘러가는 달맞이꽃에 비유하였다. 여기에 테이블로서의 기능을 더하여서 달맞이꽃의 이미지를 테이블에 가미함으로써 기능성과 더불어 거실에 놓여 졌을 때의 장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3mm, 5mm 적동선을 동납으로 산소용접하여 면의 형태로 제작한 뒤, 염화암모늄 100g : 탄산암모늄 150g : 1ℓ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으로 파티네이션 착색을 하였다. 이때 적동선과 동납에 착색된 색의 차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의도하였다. 테이블의 형태는 철판을 가공하여 제작하였고, 손이 많이 닿는 모서리 부분에 장미목을 덧 데어서 금속성의 차가운 느낌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달맞이꽃은 달빛을 강하게 받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명한 노란색의 아크릴컬러로 채색을 하였다.

### Ⅲ.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다문화, 다민족화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형성하고 그 인구 유입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느낀 결혼이민여성들 내면의 그리움·외로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등의 감정을 조형소재인 달맞이꽃의 이미지와 결부시켜 금속 조형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형전개과정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타국에서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사실적 재현과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황설정을 통한 이미지표현을 시도 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작품의 회화적 표현을 피하였다. 특정대상의 이미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조형으로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객관적인 조형언어로 적절히 표현을 하였을 때 감상자에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그 작품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달맞이꽃이라는 소재로 공통된 주제를 갖는 여러 이미지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연구자의 감성을 조금 더 풍부한 감성으로 시각화하는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달맞이꽃의 이미지를 조형화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가 의도하고자 했던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한 점이 다소 미흡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더욱 더 진지한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가 결혼이민여성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여성임을 인식하여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금안, 『color therapie 색채심리』, 솔과학, 2007.
-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 현암사, 1990.
- 김태정, 『한국야생화7, 여름 길가에 피는 꽃』, 국일미디어, 1997.
- 김현성 외 3인, 『색채학』, 일진사, 2001.
- 데이비드 라우어,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예경, 2002.
- 박수현, 『한국귀화식물 원색도감』, 일조각, 2001.
- 성영혜 외 3인,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대출판부, 1997.
- 신용섭, 『우리 땅에 사는 아름다운 꽃 도감』, 여우별, 2013.
-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03.
- 차운정, 『열려라 꽃나라』, 지성사, 2003.
- 최승호, 『달맞이꽃 명상』, 아침바다, 2004.

### <학위논문>

- 김 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밤’ 이미지연구;이상화,심훈,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성원, 「현대적 테이블 디자인에 관한 연구;전통적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동의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현주, 「해와 달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 연구」, 부산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문경영, 「소외된 대상으로서의 꽃이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정현,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및 정서·심리적 특성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영선,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수도권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인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정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경숙,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학술 저널>

- 김이선 외 3명,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신문 기사>

- 김대근, (2011.05.20), 결혼이민 여성들, “필요한 교육 받고 싶어요”, YTN  
홍서표, (2012.04.28), 결혼이민 여성 원지연씨, 첫 우체국 보험설계사 되  
다, 조선일보
- 이위재, (2012.05.04), 결혼이주여성 취업 교육에 서울시 4억 3400만원 지  
원, 조선일보

조한재, (2012.10.10), 이주여성 모국방문길 활짝 “웃음꽃 피었어요”,  
중부일보

전영선, (2013.09.23), 돌아오는 베트남댁 눈물 대신 희망을, 중앙일보

#### <웹사이트>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사전 <Doopedia>

<http://www.moj.go.kr> 법무부

<http://www.ecolive.or.kr/> 사단법인 무지개세상

<http://www.econature.co.kr> 월간 <자연과 생태>

[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위키피디아

## ABSTRACT

### A Study on An Expression of a Evening Primrose's Image

Jinhee Song

Major In Metal Crafts

Dept.of Crafts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Hosung Park

An Evening primrose is a naturalized plant originating in Chile, America and came into Korea a long time ago. And then it was distributed nationwide and is called as 'Evening promise' or 'Sundrops' because it blossoms at night like waiting for the moon. Thanks to its reproductive rate, an evening primrose can be seen anywhere in the country and puts down its thick roots deep in the earth and bursts into yellow bloom in the summer following winter. From such image of an evening primrose, the researcher could come up with the image of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and adapting to a new culture and environment after coming over to a new country.

Recently, multi-cultural, multi-ethnic tendency is increasing in the composition of Korean population. In particular, married immigrant women are forming a new family type,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is being also accelera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body feeling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inner longing · loneliness and hope for a new life etc. noticed by the researcher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n Korea in metal formative works through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of an evening primrose.

As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er referred to related data which have been published so far and directly observed and analyzed the outward characteristics of an evening primrose. Based on this, by developing discussion about an evening primrose and finding common points in the proper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setting various formative conditions, the researcher embodied married immigrant women's inner feelings of nostalgia and hope to the shape of an evening primrose.

For the formative development of the works, the researcher examine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 evening primrose, investigated the circumsta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xpressed the image of an evening primrose based on this in Chapter 2. To this end, every work expressed images around an evening primrose and works were produced by giving the role of mediator comforting married immigrant women's longing to the moon and moths. The works except for the table work were expressed pictorially for the decorative feature of space.

Red copper, aluminum and iron were used as the main materials of the works and coloring methods of burning coloring, patination coloring, iron coloring, sulfurated potash coloring etc. and acrylic color painting were used to express a variety of colors beyond the limit of metal colors.

Forming the works of several images as a common theme by combining the image of an evening primrose and image of married immigrant women became the foundation for ongoing work activities in

expressing the researcher's formative intention.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study will somewhat soothe married immigrant women's minds and become another hope by expressing their sorrow.